

무용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재고찰

정 옥 희*

『Dancing from Past to Present: Nation, Culture, Identities』

Edited by Theresa Jill Buckland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6)

2000년대 이후 국내 무용학과에 박사학위과정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한국 무용학은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전문학회와 연구소, 그리고 등재학술지가 꾸준히 활동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무용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연구들의 홍수 속에서 정작 거시적 관점에서 무용학의 근원적 성격이 무엇이며 변화하는 학문적 사회적 지형 속에서 어떤 도전에 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다소 드물다. 이렇게 볼 때 미국 무용학의 양대 접근법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Dancing from Past to Present: Nation, Culture, Identities』은 한국 무용학의 성숙을 위해 귀담아 들어야 할 조언을 품은 책이라 할 수 있다.

『Nation, Culture, Identities』는 춤을 탐구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한 종횡적 축들—말하자면 과거와 현재, 이 곳과 저 곳, 그리고 자아와 타자의 복잡한 얽힘에 대하여 고찰하는 책이다. 독립된 학문분과로서의 무용에 대하여 무용학자들이 야심차고도 반성적으로 접근하는 증언록으로서 무용학의 거대서사를 구축하는 동시에 해체시킨다. 그리고 거대서사의 해체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용학자로서의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와 관점을 재정비하고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건설적이다.

이 책의 기본 테제는 2006년 미국의 SDHS(Society of Dance History Scholars)의 뉴스레터에 당시 학회장이었던 수잔 매닝(Susan Manning)이 기고한 글을 연상케 한다. 매닝은 미국내 무용관련 전문학술단체인 SDHS와 CORD(Congress on Research in Dance)가 각각 미국 무용학의 “역사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을 대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두 단체의 활동 및 지향점이 서로 겹치거나 모호해진 점을 인식하면서 보다 활발한 교류를 촉구했으며 심지어는 통합까지도 제안하였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두 단체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처럼 무용학에 대한 대범하면서도 근본적 재고찰은 같은 해 출간되었던 『Dancing from Past to Present』의 핵심적 특성이라 하겠다. SDHS의 무용사연구물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되면서도 주요 무용인류학자들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담은 이 책은 무용학의 개념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 성균관 대학교 강사, okheejeong1@gmail.com

이 책은 무용학의 담론에 깔린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문제삼는 데서 출발한다. 편집자인 테레사 질 버클랜드는 무용학의 양대 방법론인 역사연구와 문화기술지가 각각 서구 극장예술춤과 나머지 춤현상을 구별짓고 이를 공고화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틀로 작용해왔음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용학자 켄트 드 스페인이 지적하듯 “사회문화적으로 권력있는 자의 과거와 현재는 ‘역사’와 ‘비평’의 대상이, 그리고 그 나머지의 과거와 현재는 ‘인류학/문화기술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p. ix). 방법론적 구별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지적하면서 버클랜드는 무용학의 미래는 역사연구와 문화기술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따라 그녀는 일곱 명의 무용인류학자들에게 그들의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역사의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의뢰했다. 애드리언 L. 캐플러(Adrienne L. Kaeppler, 연구지역-통가), 펠리샤 휴스-프리랜드(Felicia Hughes-Freeland, 자바), 린 D. 매너스(Lynn D. Maners, 보스니아-헤제고비나), 데이드르 스클라(Deidre Sklar, 뉴 멕시코), 자넷 오셔(Janet O’Shea, 인도), 주디 반 자일(Judy Van Zile, 한국), 엘시 이반치크 더닌(Elsie Evancich Dunin, 마케도니아), 그리고 테레사 버클랜드(영국)가 참여했으며, 연구지역의 고른 안배에도 주의를 기울여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 지역에 대하여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해 온 중견연구자들의 경험과 안목, 자기성찰과 고군분투, 그리고 특정 연구 문제에 대한 사고과정을 이렇게 쉽게 엿볼 수 있다는 것은 후속세대 연구자들에게 값진 조언이 될 것이다.

책 도입부에 실린 편집자 버클랜드의 명확하고도 강력한 서론은 이 책이 단순히 여러 학자들의 글모음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끔 한다. 특히 이 글은 춤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의 관계 및 융합에 대해 관심 있는 연구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버클랜드는 무용문화기술지를 무용사 및 민속학과 구별지어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학과 문화기술지를 통합하는 보다 유연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제간 통합은 마냥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학제적 토대에 대한 무지나 무시, 그리고 “몸”, “토착 연구자” 등 유행하는 개념이 아무런 편견 없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오히려 각 학문 분과의 맥락과 토대 속에서 개념과 방법론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되어야만 의미 있는 학제간 연구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후 이어지는 각 에세이에서 저자들은 “현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문화기술지의 맥락에서 “과거”를 탐색하며, 특히 장기간의 필드워크에서 드러나는 “역사”의 독특한 감각에 대하여 회고한다. 에세이들의 공통적 테마가 있다면 바로 역사가 지닌 정치적 의미와 이것이 현재 개인적, 혹은 공통체적 정체성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검토이다. “문화적 유산,” “민족 건설,” “만들어진 전통”과 같은 개념들이 빈번히 등장하면서 각각의 구체적 연구환경과 맥락 속에서 다채롭게 변주된다. 애드리언 캐플러나 엘시 이반치크 더닌이 보여주듯 전 생애에 걸친 필드워크는 그 자체로 역사가 된다. 1960년대 각각 통가와 마케도니아에서 연구를 시작한 후 40년이 흐르면서 당시의 문화기술지적 기록은 점차 역사적 과거로 변모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통가에서의 춤과 춤추기: 인류학적이고 역사적 담론들”이라는 에세이에서 캐플러는 역사가 단선적으로 매끈하게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통념을 문제삼으면서 우리는 기록되거나 목격된 특정한 순간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통가 춤에서의 네 번의 역사적 순간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그녀는 “현재를 위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춤에 대한 틀짓기와 해석하기이다”(p. 27)라고 한다. 역사적 기록물과 자신의 문화기술지적 기록을 비교하면서 캐플러는 미래에 사람들이 춤 활동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문화기술지적 기록물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즉 인류학자인 그녀는 통가춤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하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하여 쓰고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 변화에 불과했던 것인지는 미래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인위적 속성에 대한 매우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고찰이라 할 수 있다.

캐플러에 비하여 더닌은 문화기술지적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 보다 집중한다. “마케도니아 스키페에서의 로마니 춤 이벤트: 연구 전략,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테크놀로지”라는 글에서 더닌은 “1967년에 포착한 인류학적 순간이 1990년대 후반에는 그 자체로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고 회고한다. 시각인류학자인 그녀는 춤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로마니 춤을 기록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드워크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사진과 비디오를 사용했다.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술과 일련의 중요 발견점을 포착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은 시각 인류학이 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지인들 스스로가 남긴 자료가 부족하기에 이제 더닌의 인류학적 기록물은 지역의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

한편 “클래식 전통 구축하기: 인도네시아의 자바 궁중무용”에서 펠리샤 휴스-프리랜드는 인도네시아 궁중무용을 둘러싼 신비화된 역사와 유동적인 현재의 불일치에 대하여 논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춤에 대한 토착민의 관점이 외부자의 설명만큼이나 신비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휴스-프리랜드는 비토착 연구자들은 복잡한 사회정치적 맥락 뿐 아니라 토착적 관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휴스-프리랜드가 인도네시아 춤을 연구하는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했다면, 주디 반 자일은 한국춤을 연구하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역사적 기록 해석하기: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춤의 이미지 사용하기”라는 에세이에서 반 자일은 한국춤에 대한 자신의 방대한 연구를 요약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두 가지 춤에 대한 시각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자신의 사고과정을 드러내었다. 한국인 연구자, 즉 “토착 연구자”들과의 대화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통해 반 자일은 토착학자들과 비토착 연구자들이—결국은 둘 다 사료의 맥락 자체에서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상이한 지리문화적 관점에 따라 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 자일의 논의가 매우 구체적이고도 세밀했다면 자넷 오셔와 테레사 버클랜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자로서의 사고과정과 성장을 보여주었다. 한편 데이드르 스클라의 경우 문화적 지식과 기억을 체화하는 움직임의 감각적이고도 육체적인 측면을 논의하였다. 종합해 볼 때 이 책의 모든 에세이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춤을 연구하는 방식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도록 한다. 게다가 책 뒤에 덧붙여진 참고도서 목록 및 요약문은 이 책이 지향하는 바를 더욱 뚜렷이 제시할 뿐 아니라 최근 영미 무용학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안내로서도 기능한다.

그런데 이 책이 모두 장기간의 문화기술지적 필드워크에만 맞춰진 점은 아쉽다. 무용사와 문화기술지의 학제적 구분을 넘어 무용학 자체를 재탐색하려는 야심찬 의도에 비해 실제 책에는 매우 균질한 집단의 저자만이 참여한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낸다. 첫째, 확고한 지역적 기반을 둔 연구물만을 상정한다. 책의 서두에서 연구지역을 표시한 세계지도가 제시된 점에서 이미 드러나듯 이 책은 공간화된 문화의 개념, 즉 연구자가 “거기”에 가서 구체적 환경 속에서 연구한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그런데 문화기술지의 이러한 개념은 전통적 필드워크에서 다룰 수 없는 보다 복잡하고 파편화된 현상을 감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앤소니 셰이(Anthony Shay)가 말하는 “평행적 전통들(parallel traditions)”의 개념처럼 전문민속무용단이나 이민자 커뮤니티가 행하는 춤 현상들은 여러 층위와 단절, 그리고 공

존을 가지기에 탈영역화되었다. 따라서 단일한 지역을 연구한 사례 외에 조지 E. 마커스(George E. Marcus)가 말하는 “복합-지역적 문화기술지(multi-sited ethnography)”의 사례도 포함되었더라면 전체 책의 야심찬 기획이 더욱 빛을 발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단일지역 연구 뿐 아니라 저자가 모두 인류학자인 점은 역사와 문화기술지의 방법론을 동등한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책은 무용인류학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에 대한 관점을 대변하지만 그 반대의 관점, 즉 무용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인류학적 측면은 다루지 않는다. 물론 이 책이 무용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리즈물의 일환으로 나온 것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속 선집이 뒤따른 것도 아니기에 이 책의 야심찬 의도는 미완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학의 본질적 속성과 토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던졌다고 할 수 있으니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히 훌륭한 촉매제라 하겠다.